

‘흑산공항 건설 마지막 관문’ 국립공원위 심의 준비 순조

공항부지 국립공원 해제 대신 대체부지 변경안 제출

1월 최종 결정...가장 큰 걸림돌 환경문제 해결 기대

신안군이 흑산공항 건설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준비로 분주하다.

공항 예정부지를 대체할 국립공원 편입 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대체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은 흑산공항 예정부지 1.21km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보다 4.3배에 달하는 신안지역 갯벌 5.32km로 대

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경안은 내달 광역시·도 국장들이 참석하는 총괄협의회와 내년 1월개로 예정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군은 국립공원 대체편입이 확정될 경우 흑산공항 건설심의를 보류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환경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하면서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성과 경제적 타당성, 안전성 등의 보완을 요구

했다.

이 중 항공수요와 경제성 분석, 안전성 보다는 공항 예정부지 자연환경과 식생, 수목, 철새의 영향 등이 공항건설 반대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정수 신안군 흑산공항추진단장은 “공원내 식생 등은 보존과 이식작업 등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면서 “국립공원 대체부지가 수용되면 환경문제가 해결돼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동일한 시기에 추진됐던 울릉공항은 지질공원이라는 이유로 조만간 착공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실망감도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흑산공항과 함께 소형공항 건설 계획이 반영됐던 울릉공항은 오는 26일 착공식을 갖는다.

두 지역 모두 같은 시기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시공사 선정 등 공항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지만, 흑산공항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 단장은 “흑산공항은 예정부지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며 “섬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흑산공항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흑산공항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현리 54만7,646㎡에 1.2km의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사업이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안=이주열 기자



서구민한가족 나눔 후원품 전달

광주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18일 오전 ㈜브레인포커스(대표이사 임선영)로부터 '2020년도 광주리(RE)플리마켓' 참여를 계기로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아토크림 및 건강기능식품(오오드V4) 1,000개(2,745만원 상당)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구청 제공

김영록 지사 “확산세 차단 한계”

긴급담화문...목포·무안 삼향읍 1.5단계 격상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n차 감염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봤을 때 역학조사와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차단하는데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담화문을 통해 “지난 7일부터 12일 간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과 화순 등에서 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계절적인 위험요인과 겹쳐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을 살펴

보면 순천시는 신한은행지점을 시작으로 식당과 헬스장·사우나·병원 등으로 이어졌다.

광양시는 성광기공업과 소평센터, 식당, PC방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화순군의 경우 요양보호사에서 시작해 배우자와 자녀, 직장동료, 재가서비스 수혜자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목포시에서는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던 여성이 퇴원 후 확진돼 가족, 가족병원 간호사, 목포대학교생 등으로 전파됐다.

김 지사는 “감기와 혼동해 증상발현 후 전파력이 왕성한 3-4일동안 계속 활동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연말 송년회 등 사적모임과 회식 자제, 출·퇴

근 이의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침·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증상 시 돌아다니지 말고 도와 시·군이 비용을 부담 중인 진단검사를 즉시 받아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비롯해 업체에서도 집단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며 “헬스장과 사우나, 식당,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하고 밀폐시설 이용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광양·순천·여수에 이어 목포시·무안군 삼향읍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 0시를 기해 1.5단계로 격상한다.

또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재개 등 병상확보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받으세요”

시, 음식·숙박업 등 58개 업종에 최대 2,500만원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별보증 대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광주, NH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한)과 골목상권 특별보증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지원기간은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지원규모는 시·금융기관의 출연금의 12배인 총 432억원이다.

지원금액은 업종당 최대 2,500만원이

며 지원조건은 고정금리(3.0%/3년, 3.2%/5년)와 변동금리 2.03%(9월 기준) 중 자율선택으로 거치기간 없는 원금 특별보증 대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신청절차는 대상 사업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 신용도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배현숙 광주시 민생경제과장은 “연말까지 지원보증 규모가 여유가 있으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특별보증 대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중도장 구제역 등 검사 실시

도, 가축전염병 13종 대상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중도장 24개소와 돼지정액처리업체(돼지인공수정센터) 3개소 등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0일까지 도내 중도장 및 정액처리업체 내 씨돼지와 사육단계별 비육돈을 대상으로, 폐사율이 높고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13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축사 소독시설 설치 등 차단 방역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검사항목은 구제역과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5종이며, 우수 중도장에 대해선 살모넬라병, 돼지유행성 설사 등 8개의 질병을 추가로 검사한다.

/김용현 기자

전남 농수산물식품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수출

74만달러 달성...내년 전 세계 온라인 확대

전남도는 18일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장성 비축기지에서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제품의 네 번째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는 현재 도내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 24개사의 50개 제품이 입점돼 판매 중이며, 이번 선적한 물량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74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도는 지난 7월 도내 생산된 농수산물식품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에 식품 전

문 브랜드관을 개설했다. 브랜드관에 입점된 24개 기업 중 13개 기업은 해외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이지만, 미국 수출을 위한 FDA 시설등록부터 온라인 마케팅 관련 컨설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현재 브랜드관에서 인기가 있는 유기농 표고분말과 유자차, 고추장, 배즙, 모듬해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당초 올해 수출 목표치인 50만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연말까지 90만달러 수출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도의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7

개(고구마, 견어물, 유기농김, 전복, 유자, 매실, 장류) 스타 품목 중 제품개발 및 포장 디자인이 완료된 고구마말랭이와 견어물 스낵류 제품이 선적돼 12월말부터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브랜드관 운영 초기인 현재는 미국 한인동포들이 주요 고객이다”며 “디자인 현지화·홍보 동영상 제작 등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현지인들이 찾는 브랜드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미국 아마존에 이어 내년 유럽 아마존에 진출하는 등 ‘전남 식품브랜드관’을 전 세계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가장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을 위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9

- 발전사업의 명칭 : 가장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8번지 일대 7,188㎡
- 발전설비용량 : 999kWp
- 착공 예정일 : 2021년 2월 15일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개시 예정일 : 2021년 8월 1일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기간 : 준공 후 25년간 운영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주)가장태양광발전소 / 피에스파워(주)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기한과 방법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 이후 7일간
 - 의견제출 및 문의 방법 : 이메일(jyehsurething@gmail.com), 전화(02-6951-1948)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임·매매·부동산·광고·영양·병원·모임

· 광고료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자주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매가전

전남매일

월간 지방자치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부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분실공고

- 종류 : 분양공공계약서
- 주소 : 광주광역시 신가동 모아엘가아파트 101동 204호 (84㎡ A타입)
- 계약자 : 김태균
- 연락처 : 010-8812-6954
- 2020년 11월 18일

* 위와 같이 분양공공계약서를 분실 하여 이에 공고함.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정차역 편의 법원사주 시간적 효율

▶ 지사오픈 상담 ◀

호남지사 062-417-4720 / 010-3138-9972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